

데스크 시각



임동욱
서울취재본부 부본부장

이정현의 도전 ‘시즌 3’

일하고 싶다’는 것 하나였다. 그러한 그의 진정성이 민심을 움직인 것이다. 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시절, 호남 현안의 창구 역할을 하면서 진정성에 신뢰를 쌓은 것도 19대 보궐선거와 20대 총선에서 잇달아 당선되는데 큰 힘이 됐다. 그의 ‘피와 땀과 눈물’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대구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과 전북의 새누리당 정운천의 당선에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다.

민심을 움직인 진정성

그의 도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대 총선 과정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그때만 해도 영남 기반의 당 대표에 호남 출신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그저 ‘선거운’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그는 총선에서 당선되자 곧바로 당권 도전을 실행에 옮겼다.

결과에 배망과 밀집모자의 ‘3중 세트’로 전국 투어에 나섰다. 선거 캠프를 따로 마련하지 않고 발로 걷고, 버스를 타고, 택시로 이동하며 현장에서 민심을 대하는 ‘뚜박이 유세’로 눈길을 끌었다.

가끔 여의도에서 만나본 햇볕에 그을린 얼굴로 “전국 당원들의 반응이 예상외로 뜨겁다”며 “당선이 가능할 것 같다”고 특유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때는 당권 주자로서 ‘그러려나’ 했다. 정치권에서도 보수 여당의 기득권 구조와 정서 등을 감안한다면 최초의 ‘호남 대표’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듯이 민심의 저변에는 ‘이정현 바람’이 불고 있었다. 이미 영남과 보수층을 기반으로 하는 새누리당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진정성과 변화로 무장한 ‘이정현’을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위기를 타파할 적임자로 주목하고 있었다. 친박 진영의 지지 오더 등은 말 그대로 사족(蛇足)에 불과했다.

오히려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전대까지 이어진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진영의 이전투구(泥田鬪狗)가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역주의 극복 나서야

실제로 정당대회에서의 득표를 분석한 결과, 이 대표는 일반 여론조사에서 38.2%를 득표해 20.5% 득표에 그친 비박 단 일후보 추호영 의원을 압도했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이 대표가 42%, 주의원이 33.2%를 각각 득표했다. 민심도, 당심도 이정현을 선택하면서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던 보수 여당에서의 호남 대표가 현실화된 것이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 섰지만 그의 등에는 많은 짐이 지워져 있다. 정치권에서는 그가 대표로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친박과 비박의 화합, 공정한 대선 관리 등을 말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가장 큰 과제는 보수·기득권 세력의 색채가 짙은 당을 민심의 결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실패했던 지역주의 극복의 길이며 또 그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 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이다. 당 내외의 기득권 세력과 수시로 충돌해야 하며 때로는 대통령과도 이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끝내 가야만 할 길이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여당 내 야당’의 역할이다. 그가 대통령의 심기(心氣)를 살피는 데 급급하고 기득권의 구조에 몸을 날리며 대선 관리인에 그친다면 그동안의 도전은 빛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가 주장한 차기 대선에서의 호남 20% 지지율도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것이다.

여권의 불모지인 호남에서의 재선이 그의 도전 역정의 ‘시즌 1’이라면 호남 출신으로 보수 여당의 대표직을 거머쥔 것은 ‘시즌 2’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시작하는 ‘시즌 3’은 그가 보수 여당의 변화를 이끌면서 지역주의 타파를 통한 새로운 정치권의 질서를 만들어 내는 내용을 기대해 본다.

은편칼럼



심명섭
대한문화학자회 광주·전남 회장

더위 속의 청량제! 아이들의 책 읽는 소리

종족보존을 위한 처절한 울부짖음인 것이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듣는 것은 비슷하다. 좋은 소리는 듣고 싶고, 좋지 않은 소리는 듣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 종류의 소리가 있지만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 가장 듣고 싶은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아마 땀에 젖은 얼굴을 적어주는 시원한 바람소리, 땀방울 내리치는 햇빛을 막아주는 울리가는 구름소리, 한낮 더위를 식혀주는 소나기 내리치는 소리 등 자연의 소리가 가장 듣고 싶은 소리일 것이다.

이러한 자연의 소리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바로 아동들의 책 읽는 소리(兒童讀書聲·아동독서성)야 말로 더위를 식혀주는 청량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은 수학문제 풀이도 눈으로 하는 시대이다 보니 책 읽는 소리를 듣기가 여간 힘들지만 우리 선조들은 식량이 없어 밥을 굶어 뱃속에서 쪼르르 소리가 난다고 해도 책 읽는 소리를 내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겼다.

조선시대 성리학자인 정인지와 조광조는 소년 시절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야로 독서에 열중했고 책 읽는 소리가 주위에 울려 퍼져 이웃에 사는 처녀들의 마음을 들추어줬다고 한다. 그 결과 책 읽는 소리에 심취한 처녀들이 월담을 감행, 이들

의 서재로 침입하여 사랑을 고백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현직에 있을 때의 일이다. 인사이동으로 인해 부임 후 창고를 살펴보는데 커다란 액자가 하나 있었다. 무슨 액자인데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나고 담당자에게 물었더니 그러잖아도 본부 재물조사에서 자살인 액자를 방치하느냐는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부착할 곳이 없으면 내방에 부착하라고 했다.

그런데 막상 부착해놓고 나서 글(駿馬食草聲 美人彈琴聲 鸞雛好 不如兒童讀書聲)을 살펴보았으나 소리에 대한 글이라는 것은 알겠으나 명확한 뜻은 알 수 없었다. 혹시 방문화신 손님들이 이게 무슨 말이나?고 묻기라도 하면 설명은 해드려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에 불륨이 두꺼운 논어를 대충해 통독하기에 이르렀고 드디어 그 뜻을 알아냈다.

바로 하늘 아래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준마식초성(駿馬食草聲), 미인탄금성(美人彈琴聲), 아동독서성(兒童讀書聲)이다. 무슨 뜻인지 대강 짐작은 같 것이다.

풀이하자면 준마식초성은 잘 단련된 말이 푸른 초원에서 풀을 뜯는 소리다. 끝이 보이지 않는 드넓은 초원에서 목동의 일사불란한 지휘아래 말들이 군집을 이

루어 이동하면서 쓱쓱쓱 풀을 뜯는 소리다. 미인탄금성은 아름다운 여인이 한복을 차려입고 다소곳이 앉아서 가야금을 켜는 소리다. 혹자는 미인대상성(美人解帶聲)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여인이 웃고름을 푸는 소리라고도 말한다. 다음으로 아동독서성은 어린 아동이 흥분불을 켜놓고 중얼중얼 글을 읽는 소리다. 종합하자면 이 세 가지 소리 중에 아동의 책 읽는 소리가 가장 아름답다는 글이다.

우리 선조들은 책을 눈으로 읽지 않고 소리 내어 읽었다. 입을 책도 몇 권 되지 않았고, 읽는 목적도 생활의 지혜를 얻는 데 두었으며 지식의 획득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지혜는 개인만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쓰지 않고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서 썼다.

반면에 현대사회는 인생물의 급증과 함께 정보의 홍수시대다. 여기저기 널려있는 것이 책이다. 그러나 국민독서량은 날이 갈수록 현저히 줄어드는 실정이나 아동들의 책 읽는 소리는 분명 독서율도 높이고 가마솥더위를 식혀주는 청량제가 될 것이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인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社說

지역 탕평은 없었다…민심 외면한 불통 개각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3명의 장관과 4개 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현 정부 마지막 개각이어서 호남 인사 중용을 통한 탕평과, 국정 활력을 위한 세신을 기대했으나 이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돌러막기’ 인사였다는 평가였다.

가장 주목됐던 지역 탕평 인사는 아예 몰려갔다. 전남·북이 대표적인 농도인 까닭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완도 출신 정승 전 농식품부 2차관의 발탁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경북 영양 출신인 김재수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에 돌아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아예 개각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번에도 명진 조정규(경남 진주) 환경부장관, 조운선(서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내정자도 모두 비호남 출신이다. 다만 교체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전남 함평)은 유임됐다.

인사가 있기 전 이정현 신임 새누리당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탕평을 건의

해 한 가닥 희망을 갖는 이도 있었지만 이마저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 정부는 이번 인선에 대해 안정적인 국정 추진을 위해 전문성 위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지만 과거 늘 듣던 말일 뿐이다. 정부는 그동안 경질 여론이 높았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도 꼭 눌러 앉혔다. 이번 개각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우 수석 교체 여부 또한 관심이 있었지만 오히려 우 수석에 대한 박 대통령의 확고한 신임만 확인하는 꼴이 되었다. 아담에서 지역적인 ‘오기·불통 인사’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이이다.

지역에서는 이래 놓고 내년 대선에서 호남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 많다. 호남 출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선출로 내년 대선에서 내심 지역 표심을 기대했을 법한데 장관 자리 하나 내주지 않는 정부 등당에 섰듯 마음이 가겠느냐는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박근혜정부이지만, 심히 걱정된다.

휴가철만 되면 버려지는 반려동물 많으니

여름 휴가철만 되면 버려지는 반려동물과 주인 잃은 유기동물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동물이라 할 지라도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인권도시 광주라 해서 예외가 아닌 듯하다.

광주시와 광주동물보호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광주동물보호소에 맡겨진 유기동물은 모두 7542마리로, 매년 2000마리 이상이 버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2431마리(32.2%)가 6~8월에 집중적으로 버려졌으며 월별 평균으로는 6월 288마리, 7월 283마리, 8월 239마리였다. 1년 중 반려동물이 가장 많이 버려지는 달은 5월(298마리)이며 유기동물 숫자가 가장 적은 달은 1~3월(평균 124~141마리)로 나타났다.

집중적으로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방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려동물을 함께 데리고 휴가에 나섰다가도 피서지 도로변에 버리고 돌아오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결국 매년 여름이면 각 지자체의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포화 상태가 되고, 수용된 동물들이 안락사 위기에 놓이거나 죽음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을 들어 유기동물을 관리해야 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반려동물 등록제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등록제를 통해 마이크로칩을 의무적으로 동물에 심는 방법으로 바뀌 나가고 이를 통해 지자체가 단속해 나가면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타인 혹은 다른 생명과 사람을 나누고 교감할 줄 아는 ‘인성’의 회복이 더 시급해 보인다.

無等鼓

2010년 9월 총남 당진의 한 철강업체에서 일하던 젊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용광로에 빠져 숨졌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용광로에는 섭씨 1600도가 넘는 쇠물이 들어 있어 숨진 이의 주검을 찾을 수 없었다. 이 기사가 뜨자 유명 포털사이트에 댓글이 달렸다.

“그 쇠물은 쓰지 마라/ 철근도 쓰지 말 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마라...맘씨 좋은 조카가 불리/ 살았을 적 얼굴 흠으로 빛... 가끔 엄마 찾아와/ 내 새끼 얼굴 한번 만져보자, 하계”

‘제페토’라는 네티즌 글에만 2000명이 넘는 이들이 ‘좋아요’라고 눌렀고 400개가 넘는 답글이 붙었다. 일각에서는 시에 쓴 대로 숨진 청년의 추모 동상을 세우자는 모금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제페토는 이때부터 ‘맛길 시인’으로 불리면서 악플이 난무하는 인터넷상에서 맛길 평화 효과를 불러오는 청량제 같은 존재가 됐다.

“제리를 훑쳤습니다/ 피지 못할 사랑을 읊소해 보고도 싶지만/ 나라님을 알 바 아니데/ 가난에 관해서는/ 애기 끝났다 하실 테죠/...돌아가 아이들에게 / 벼슬 같은 가난을/ 세습해 주어야겠

습니다” 초등학생 자식들에게 체리 맛을 보여 주려고 아파트 현관문에 놓인 3만 원짜리 체리 택배 상자를 훔친 엄마 기사를 보고는 “체리와 장군”이란 시로 가난의 대물림을 가슴 아파했다.

사회유 열풍을 다른 기사에는 “박정호가 죽었어오/ 훌쩍대는 전화에/ 울 엄마는 그 아이/ 몇 등이나 물었네”라고 통렬하게 풍자했다. 제페토는 악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나 생활고, 세월호 참사 등 주로 사회현명 기사들에 댓글을 달아 1980년대 참여시의 전통을 잇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맛길 시인

제페토가 그동안 인터넷을 감동으로 달군 맛길 시 100여 편을 모아 첫 시집을 내놓았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국문과 교수나 시인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었지만 그는 출판사를 통해 ‘40대의 평범한 직장인’이라고만 밝혔다.

인터넷상에서 악플이 사회문제화된 지 오래다. 연예인 등 유명 인사는 물론 일반인들까지 악플에 시달리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육살과 분노를 쏟아 내는 악플러들에게 맛길 시인의 시집을 사 주고 싶다.

/장필수 사회부장 bungy@

기 고

전통시장의 이유 있는 변신

뜻있는 작가들이 하나 둘 시장에 동지를 들면서 자연스레 예술시장의 면모를 갖춰게 된다. 2011년 10월 시장 활성화프로그램 일환으로 야시장을 처음 기획한 대인시장은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삼박자가 조화를 이루면서 지난해 지역문화브랜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거듭났다.

광주에서 손꼽는 전통시장으로 남광주 시장을 빼놓을 수 없다. 남광주시장은 광주 어느 곳보다 수산물이 유명하다. 남광주역이 있을 때 별교, 보성 등지에서 꼬막이며 생선을 머리에 얹 인 아낙들이 북적이던 것이 오늘날 수산물시장과 새벽시장의 명맥으로 이어졌다. 그 동안 동구는 남광주시장 활성화를 위해 아카데미 설치, 주차장 건립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사업과 경영혁신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더해 오는 10월부터는 남광주역 기차를 모티브로 한 먹거리 중심의 야시장을 아쉽차게 선보인다.

동구에 남광주야시장에 10억원을 투입해 수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납도육식,

다문화학습 등 ‘아시아푸드 존’으로 특화해나갈 계획이다. 매주 금·토요일 일몰 이후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는 남광주야시장은 30팀의 이동 매대 상인모집에 4대 1의 경쟁자가 몰리며 성공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 달과 별을 미디어아트로 형상화한 경관조명을 도입하고 남광주역을 모델로 한 객재구 시인의 ‘사평역에서’를 문화작품들도 시장 곳곳에 일일 예정이다.

여기에 내년 말까지 15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20여개의 남광주해뜨는시장 청년몰이 가세하면 남광주시장은 서울 밤도깨비야시장, 부산 부평강동야시장, 대구 서문야시장 등과 함께 전국의 이름난 야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듯 민관이 힘을 합쳐 전통시장의 변신을 꾀하는 이유는 시장의 몰락과 상인들의 생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그에 앞서 지역경제 선순환구조의 중요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의 매출성장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가의 매출 하락

과 정비례해왔다고 한다. 대형업체들은 뭉치돈을 벌여 분사로 가져가면 그만이지만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번 돈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다시 소비되는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야시장이 소요되는 식자재 또한 광주와 가까운 전남의 농수산물을 이용하게 되면 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야시장은 또 전통시장으로 소비자의 발견음을 옮기는데도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간에 영업하는 근대의 전통시장은 야간에 문을 여는 대형마트에 자리를 내줬다. 그러나 야시장은 20·30대 청년 상인들의 유입과 볼거리가 있는 문화공연을 갖추고 대형마트에는 없던 쇼핑과 관광을 겸한 야간상권을 오픈하면서 새로운 매출원이 발생하게 됐다. 여기에 인근에 위치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방문객 유입이 이어진다면 관광객엔츠 구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전통시장의 이유 있는 변신에 따른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 하겠다.

| | | | |
|---|---|--|---|
| 光州日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 | 주필 李洪載 | 편집국장 程厚植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지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